

목포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현장 가 보니

90세 한글 깨치고 91세 자서전 쓰다 “배움이 즐거워” 뜨거운 늦깎이 열정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우수상 수상작 인 김금단 할머니의 작품.



환갑 넘어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어머니 자서전 쓰기'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어르신 20여명 인생 2막 한 자 한 자 삶의 이야기 일기·시화·편지에 담아내 11월 '1인 1자서전' 만들어 조출한 출판기념회·전시회

90세가 넘어선 할머니,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까지 평생 십자가처럼 등에 지고 살아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 자 한 자 글담을 쌓아올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눈물겹다. 늦깎이 배움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자서전'이란 이름의 글로 짜내는 이 땅의 어머니들. 그 삶의 향기가 잡기만큼이나 고소하고 인절미처럼 질경거린다. 때로는 가슴 저미는 뭉클함이 거센 파도가 돼 밀려온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하고 환갑이 넘어서 형설지공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뜬 할머니들. 배움의 텃밭에서 행복의 푸성귀를 가꾸는 전남도 교육청 산하 목포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다.

◇'어머니 자서전 쓰기' 과정은=목포공공도서관(관장 김기정)이 개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난 4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24회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이는 공공도서관 내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육인 '훈민정음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인 60대~90대 고령의 어머니들이 한글을 깨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목포공공도서관

평생학습부가 자체 기획했다. 교육과정은 매회 다른 22개의 주제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일기, 시화, 편지 등으로 담아내는 방식이다.

오는 11월에는 1인 1자서전을 제작해 조출한 출판 기념회와 전시회 자리도 마련된다.

이 과정에는 훈민정음대학 졸업생 등 20명이 수강하고 있다.

훈민정음대학은 초등학교 미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과 수학, 역사 등 사회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교육하고, 3단계 수료 시 초등학교를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인정 1~3단계 3과정(소방관, 배움반, 지혜반)으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고재술 평생학습부장은 "어머니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수 쓴 자서전, 월 답았나="늘그막에 나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대견하

고 뿌듯합니다" 임공순 할머니는 "한글을 깨치고 난 후 자식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글을 몰라 겪었던 생활의 불편들은 헤아릴 수 없다"며 그동안 감감했던 속내를 털어놓는 염규순 할머니. 아직은 받침 들어간 글자가 어렵고 힘들다. 이 교실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주목을 받는 안순례 할머니의 연세는 무려 91세다.

안 할머니는 "90을 넘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공부라 쉽지만, 의욕만은 10대 학생 못지않다"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등을 배워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김금단 할머니는 '신안 비금도 섬 농부가 학생이 된 게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따라서 '바닷길 헤치며 배 타고 학교 가는 날이 소풍처럼 즐겁기만 하다'고 노래한다. '예쁜 손주 녀석들에게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은' 게 김 할머니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시로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우수상과 전라남도지사 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지도강사인 홍명숙 씨는 "글쓰기를 배우면서 50년 동안 함께 산 영감에게 제일 먼저 '사랑한다'는 글을 써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인간에게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다"며 감동을 전했다.

/*목포=글·사진 고규석 기자yousou@

수출차량 증가에 목포항 물동량 회복세

목포~제주 연안화물도 25% 급증

목포항의 해상물동량이 수출차량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다. 목포항은 올 상반기만 해도 조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6일 "올 7월말 기준 목포항 해상물동량이 1238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소폭 감소했으나, 6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물동량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침체에 따른 철재 등 목포항 주요 화물의 수요 감소 등이며, 실제로 조선업과 건설경기의 장기불황으로 철재(303만톤)와 모래(56만톤)가 각각 8.1%와 38.9%가 감

소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수출차량(24만 1594대)은 여름휴가철에 따른 근로일수 부족 및 위안화 절하 등 악재에도 0.2% 소폭 증가하며 목포항 해상 물동량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환적차량의 경우 33.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목포-제주 간 연안 화물(과일, 생수 등 49만톤)도 25.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수출차량 물동량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목포신항 자동차 전용부두가 정식개장하면 환적차량의 증가 등도 기대된다"면서 "목포항의 물동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대, 전남권 대학생 취업능력 높이기 역할 특출

'WISET 사업단' 기업분석 경진대회

목포대학교 WISET 전남지역사업단이 전남권 대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특출히 해내고 있다.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WISET 전남지역사업단(단장 박복희)은 지난 2일 목포대, 동신대, 순천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WISET 전남지역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업분석 경진대회는 올해 4월부터 8월말 까지 운영됐으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방문

하고 견학한 후 기업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업분석 경진대회는 목포대 8팀, 동신대 1팀, 순천대 1팀 등 총 10팀이 참여해 인포섹(주)를 대상으로 기업분석에 나선 목포대 정보보호학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동신대 건축공학과가 수상했으며, 장려상에는 목포대 컴퓨터공학과와 식품공학과, 순천대 멀티미디어공학과 등 3팀이 선정됐다.

박복희 목포대 WISET 전남지역사업단장은 "2015 기업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김경희 목포대 아동학과 교수

사회과학 심포지엄 우수논문상

목포대학교(총장 최일) 아동학과 김경희(사진 오른쪽) 교수가 2015 국제 사회과학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국제 사회과학 심포지엄에서 'AI-Chemical Transformation of Human Creation (인간창조의 연금술적 변환)'이란 주제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김 교수의 논문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가 되기까지의 변환과정을 연금술의 과정을 적용,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았다.

김교수는 지난 5월 5일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증진을 통해 아동복지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김 교수는 숙명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포대 도서관장,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고대사지리학회 회장 맡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2015 영호남 문화대축전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2015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양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일시 2015년 9월 18일(금) ~ 20일(일) 3일간
장소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5156-5596

주최 | **광주일보** **每日新聞社**